

#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 Contents

- KC Network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축하의 글
- 기타 소식

\* 버밍엄 탐방기  
\* 키르기스스탄(1편)

## ● 관계사 소식

### KC Cottrell(Korea)

#### “2010년 1월 1일자로 제조사업부분과 투자사업부분으로 분리”

2009년 9월 28일 이사회를 통하여 주요제조사업부분과 투자사업부분의 분리를 결정 하였습니다. 지주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경영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관계사의 경영위험이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여 보다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 전문보기〉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솔라플러스(주) 관계사 편입”

녹색성장, 그린에너지산업 등이 강화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1) 신·재생에너지 분야, (2) 화석연료 청정화, (3)고효율기기 분야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솔라플러스(주)를 관계사에 편입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1) 설계 및 컨설팅 능력 강화, (2) 전문적인 시공능력 확대 (3) 관련 전문인력 확충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공공건물의무화, 지능형태양광발전, 주택보급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보기〉

#### “MANTRA-KC코트렐 전략적 제휴”

지난 9월23일 KC코트렐에서 MANTRA와 KC코트렐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LOI(Letter of intend)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100kg/day CO2 처리용량의 ERC 반응기의 엔지니어링, 제작, 테스트 등에 관한 제휴로 현재 코트렐에서 추진 중인 CO2 포집과 연계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nvironmental Business Journal"과 캐나다 벤쿠버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게재하겠습니다.

〈기사 전문보기〉



### KC환경서비스네트웍

#### “KC환경서비스네트웍 통합 홈페이지 오픈!”

KC환경서비스, KC환경개발, KC한미산업, KC정림환경, 베올리아ES&KC에-코사이클 등 환경서비스 5개사의 통합홈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환경서비스 네트워크 소개, 사업분야, 실적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KC가족 여러분들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kc-enviro.com>

〈홈페이지 바로가기〉



### (주)클레스트라하우저만

#### “클레스트라 상해 Show room 그랜드 오픈!”

클레스트라에서는 일년에 한번씩 'Clestra Rendezvous' 행사를 개최합니다. 클레스트라는 이 행사를 통해 함께 일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고객들과 (건축 및 디자인사, 시공사, Project management사, 등) 함께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보기〉



#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 Contents

- KC Network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축하의 글
- 기타 소식

\* 버밍엄 탐방기  
\* 키르기스스탄(1편)

## ● 고객사 동향

### 제 철

#### “포스코,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나설듯!”

： 자원 개발, 수출판로 확대 등 시너지 효과 기대

포스코가 그간 회자됐던 M&A와 관련해 대우건설 보다는 대우인터내셔널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최근 지경부 주최 수출입동향 확대 점검회의 직후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밝힌 반면, 29일 대우건설 인수방향서 마감일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우건설 인수방향서 제출이 마감되면서 공식적으로 인수방향에 없음을 드러냈으며,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면 대우건설 보다는 대우인터내셔널이 인수합병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다. 포스코는 이미 계열사로 시평순위 6위인 포스코건설을 갖고 있고, 포스코건설이 일반건설뿐 아니라 제철플랜트 사업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최근 경쟁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기사 전문보기〉

#### “포스코건설, 녹색경영대상 수상 및 명예의 전당 헌액”

포스코건설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이 주관하는 ‘제8회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에서 5년 연속으로 녹색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포스코건설은 9월 29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녹색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녹색경영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단체에게 수여하는 ‘녹색경영부문 대賞’을 수상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업계 최초로 녹색경영부문 5년 연속 수상과 함께,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이슈화되기 이전부터 포스코건설은 그린문화, 그린프로세스, 그린비즈니스 3개 분야로 녹색경영을 진행해왔다.



〈기사 전문보기〉

## 시멘트

#### “쌍용양회 영월공장 지역 재검진 43명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소견자”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유소견자로 나타난 시멘트공장 주민들에 대한 치료가 시작된다. 쌍용양회 영월공장(공장장:만광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올 6월 환경부의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조사 발표 이후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쌍용지역 주민 재검진(본보 9월7일자21면 보도)에서 43명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유소견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COPD유소견자로 나타난 쌍용양회 영월공장 주변 주민 219명 가운데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재검진에서 150명 78%가 정상인 것으로 조사돼 2개 조사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사 전문보기〉



#### “이산화탄소 잡아먹는 녹색 시멘트” - 영국 노바셀

영국의 벤처기업인 노바셀은 최근 기존 포틀랜드 시멘트 1t을 대체할 때마다 공기 속에서 0.75t의 이산화탄소를 영구히 붙잡아 고정하는 ‘녹색 시멘트’ 개발에 나섰다. 이 시멘트는 탄산칼슘 대신 마그네슘 실리케이트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원료가공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다. 런던 임피리얼 칼리지의 개발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영국 정부의 기술전략위원회가 첫 투자대상으로 선정된 이 기업은 지난 6월 100만 파운드(170만 달러)의 투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보기〉





#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 Contents

- KC Network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축하의글
- 기타 소식

\* 버밍엄 탐방기  
\* 키르기스스탄(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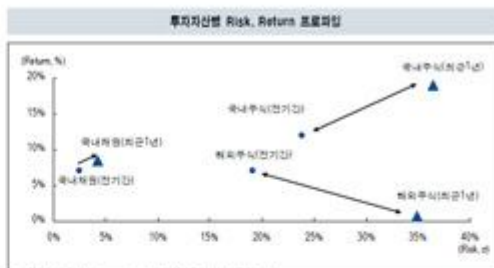
## ● 경제동향

### 주식시장 정보

#### “주식시장 10월부터 매력도 악화 예상”

KOSPI가 고점을 기록한 후 조정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의 표면적 이유는 가팔랐던 상승의 피로감, FT-SE 이벤트 종료를 원인으로 삼을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는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우려, 기업 이익의 증가 지속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4분기 자산배분은 국내주식의 점진적 비중축소, 국내채권의 점진적 비중확대, 장기적인 자산배분 관점에서 본다면 현 시점은 기존 방향상의 전환이 점차 이뤄질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투자자산별 Risk, Return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 국내주식의 경우 평균적인 수익률이 12%, 변동성이 24%인데 반해 최근 1년간의 모습은 수익률 19%, 변동성 36%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주식의 연초 대비 상승률은 50%에 다다르며, 과거 평균과의 괴리가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기 회귀 관점에서 본다면 향후 주식의 매력 도는 악화될 것으로 예상 한다.



〈기사 전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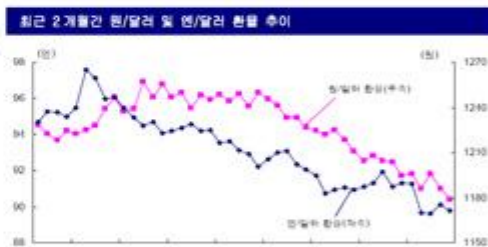
### 환율시장 정보

#### “10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70원 전망”

10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7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원화 강세 압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급격하게 움직인 글로벌 달러화 및 증시가 조정을 받을 경우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될 가능성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외평채 CDS 5년물 가산금리가 105bp까지 하락하는 등 금융기관의 해외조달 및 외화유동성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왑 대출의 회수를 계속해 9월말 잔액이 30.5억달러까지 줄어 들었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 지속, 수출업체 보유 물량 매도 등 수급 상으로 달러화 공급요인이 우세한 상태이다. 9월에도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4.88조원을 순매수하여 올 들어 26.7조원의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기사 전문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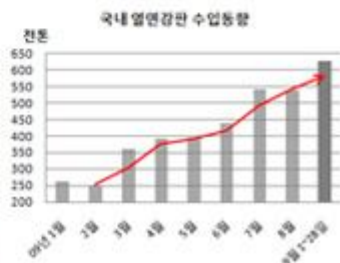
### 원자재 가격 및 수급동향

#### “내년도 철강재 및 철광석 가격 오른다 - 맥쿼리”

맥쿼리 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철광석 계약 가격은 중국 수요 회복과 철강 원료의 타이트한 공급 영향으로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핫코일 평균 가격은 톤당 538달러, 철광석 계약가격은 금년보다 10%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종전 전망치 보다 각각 12.3%, 5%가 오른 숫자다. 그러면서도 철강재 가격은 최근 설비 가동률 향상에 따른 공급과잉에 우려로 2010년 중반까지는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기사 전문보기〉



#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 Contents

- KC Network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축하의 글
- 기타 소식

\* 버림업 탐방기  
\* 키르기스스탄(1편)

## ● 축하의 글

### 함께 Global Leading Company를 만들어 갑시다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일이 인사이다 보니, 훌륭한 Leader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책을 꽤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성실, 정직 같은 초등학교 바른 생활 교과서의 내용부터 열정, 도전 등의 가슴 뭉클한 단어, 그리고 머리 복잡한 전략 매뉴얼까지 주장이 너무 많아 우선 순위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던 차에 언젠가부터 나이 들었다고, 조언 청하는 후배들이 하나 둘 생겨 나, 품 잡는 얘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해 보았는데 그것이 'Detail' 과 'Network'입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끼리 말싸움 하다가 항상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너 해 봤어? 나는 해 봤어" 라는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Detail'에 강한 사람'은 "나는 해봐서 이미 도른 사람이야" 라는 뜻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 라는 말과 '도전정신' 이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서동영 전무이사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손을 잡고 걸어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Network' 은 발 품 팔고 말 품 팔아 겸손과 우정으로 세상의 친구를 만들어 가는 힘든 과정이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법 지팡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KC라는 이름으로 이미 "Network"인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KC Cottrell 과 관계사 임직원 800명이 넘으며, 3/4은 한국에 1/4은 외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대만 등 세계 곳곳에 아무 때고 손 내밀면 잡아 줄 준비를 함께 하고 있는 동료가 800명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 주변의 책상만 보신 분들은 이제 세계 곳곳의 800명의 동료가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Global 시장에서 기술과 인재로 승부하며, Risk를 관리하여 Global Leading Company 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도전 정신 충만한 전문가이고, 800명 동료와 손잡은 회사의 주인으로 2013년 Global Leading Company 가 되는 명예스런 역사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희망합니다.

**"KC 임직원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KC코트렐 전무이사 서동영



# KC Newsletter

<http://news.kc-cottrell.com>

Korean/English

## Contents

- KC Network
- 고객사 동향
- 경제 동향
- 축하의 글
- 기타 소식

\* 버밍엄 탐방기  
\* 키르기스스탄(1편)

### Lodge Cottrell, Ltd 탐방기

지난 8/24-29일까지 김정원 전무님(CFO), 김종열 감사님(Company Auditor)과 함께 업무감사 목적으로 영국 버밍엄에 있는 Lodge Cottrell Ltd.(이하 LCL)을 방문했습니다.

LCL은 1913년 설립되어 대기오염방지산업의 선두 역할을 하였고, 지난 2005년 KC Network companies의 일원이 되었으며 현재 본사에서 파견된 박기서 사장님을 필두로 약 5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감사의 목적은 LCL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재정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여러 직원들의 인터뷰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고, 마지막 날 김정원 전무님께서 LCL직원들에게 총평 및 지적 사항을 전달하시는 것으로 여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기사 전문보기〉



### 키르기스스탄 - 1편

**“실크로드의 땅, 드넓은 평원과 이시크쿨(ISSYK-KUL)호수속의  
영롱한 별과 달빛”**

오후 늦게 인천공항을 떠나 늦은 밤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 환승지역에서 우리 일행 네사람(한국남부발전과 현대중공업)은 몇 안되는 키르기스스탄행 여행객들과 함께 여권과 비행기표를 금발머리의 카자흐스탄 여자 공안(?)직원에게 맡겨지고 다섯시간의 대기시간 내내 100여명 남짓되는 공간속에 남겨졌다. 그 공간에는 여행객외에 소파에서 잠을 청하던 직원이 운영하는 카페가 하나 있을 뿐이었는데, 통화는 오로지 카자흐스탄 화폐(Tenge)만을 받는다며 신용카드 또한 거절하였다. 분명 중앙아시아의 허브 공항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 사이 샌드위치와 음료수가 공간으로부터 배급되어서 다행이었다.

지루하고, 답답했던 알마티 공항에서의 다섯시간을 보내고, 새벽 2시 30분 활주로 가운데에 놓여 있는 프로펠러 쌍발 비행기가 우리를 품고 키르기스스탄 수도인 비슈케크로 날아 올랐다. 생전 처음 타보는 프로펠러 비행기였지만 한시간 정도 국경산맥을 넘어 적막한 비슈케크 공항의 새벽공기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고요하고 사분히 우리를 키르기스스탄땅(사실 중앙아시아의 국가중 “스탄”이라는 말이 끝에 들어가는 나라가 이 말의 뜻이 곧 “땅”이라고 하니, 올바른 표현이 아닐 수도 있음)에 내려놓았다.

〈기사 전문보기〉

